

'착한걸음 52km' 같이 걸으실래요?

자치CEO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11월2일 '착한걸음 52km'에 도전한다. 해뜨기 전인 새벽 6시 벽진서원(서구 풍암동)에서 출발해 금당산 맨발로(路), 풍암호수공원, 운전저수지,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양동시장, 영산강 자전거길, 전평제를 거쳐 다시 벽진서원으로 돌아오는 대장정 코스다. 쉬지 않고 걸어도 1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무모한 도전 또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만류하기도 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이어서 더 강한 의지가 생겼다.

이번 도전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다. 이날 '착한걸음'에는 서구 주민들이 함께 한다. 서구 관내 52km구간을 5.2km씩 10개 테마로 구분했고 각 구간마다 맨발 걷기동호회, 걷기동아리, 가족돌봄청년, 대학생, 주민자치협의회의, 두바퀴사랑회, 18개동 보강협의체 위원장 등이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걷는다. 서구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현장 주민들과 보다 진솔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걸을 때 이런 저런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편이라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다.

둘째, 이번 도전에 나선 것은 착한걸음이 만드는 기적을 믿기 때문이다.

착한도시 서구에는 참가비 5000원을

내고 5.2km를 함께 걸으며 이(2)웃의 희망을 잇는 '오-잇길'이 있다. 지난해 11월 제1회 오-잇길 걷기대회에는 1007명이 참가해서 참가비 등 603만5000원을 모았고, 지난 4월 열린 제2회 오-잇길 걷기대회에는 1592명이 참여해 862만 1000원의 정성이 모아졌다. 세 번째 행사는 '착한걸음 52km'에 도전하는 11월 2일 오후 4시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서창동, 백마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참가비 5000원만 내면 누구나 희망을 잇는 오-잇길 주인공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요즘 5000원은 한끼 밥값도 안될 정도로 적은 액수지만, 십시일반 5000원씩 모으면 새로운 희망이 되고 큰 힘이 된다.

서구는 오-잇길 참가비를 모아 가족돌봄청년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했으며, 또 다른 청년에게는 꿈 실현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도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학업, 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 안타깝게도 이들은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의 2배, 우울감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착한도시 서구가 나섰다.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1인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공동체의 일원인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보호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착한 서구민들이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착한걸음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11월2일 52km를 걸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챌린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걷는만큼 희망이 커지는 이른바 '1보 1원' 캠페인이다. 한걸음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되는 방식이며, 한달에 50만보를 걸으면 50만원을 적립해 기부할 수 있다. 지갑을 열어 거액을 내놓지 않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협력을 통해 일상에서 건강도 챙기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도시 서구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 서구청사 1층에 한달에 50만원 이상 기부하는 분들을 '서구 아너스'로 모시는 명예의전당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부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영웅들의 착한 삶과 나눔 철학 등을 스토리로 엮어 홍보하면서 '착한도시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벌써 입소문을 타면서 명예의전당이 설치되기도 전에 20여 명이 '서구 아너스'에 가입했다. 또한 현장에서 즉석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혼자 걸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름없이 얼굴 없이 묵묵히 자신의 주변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부자들, 의미있는 일을 찾아 힘을 더하고 싶지만 그동안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누구나 환영이다. 복지특새 제로, 열 두 달이 행복한 착한 서구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기고 김종률 광주 남부소방서장



立冬과 불조심 강조의 달 입동

불의 발견과 이용은 인류가 원시 동물 사회에서 인류 문명사회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물, 공기와 더불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문명사회의 필수 요소가 됐다. 이처럼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불의 가장 큰 위험은 화재이다.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화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불이 확산하여 심각한 인명피해와 건물, 주변 환경, 재산에 대한 파괴를 초래한다.

다가오는 11월 7일은 24절기의 19번째 절기인 입동(立冬)이다.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입동이 다가오면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이제 추울 일만 남았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입동 무렵의 날씨는 맑다가도 어느 순간 체감온도 영하의 추위가 몰아닥치기도 한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1월1일부터 11월30까지를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홍보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불조심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948년 '불조심 강조 주간'으로 시행된 이래 올해로 77회째를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화기나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에서 생긴 재난이다.

소방청 겨울철(12월1일~이듬해 2월28일) 소방안전대책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매년 평균 화재 1만531건, 인명피해 725명, 재산피해 2035억원이 발생하였다.

화재장소는 추운 날씨로 인해 음식물 조리, 난방기구 등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원인으로는 담배꽂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48.97%)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기 및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난방기구도 전기 외에 석유, 가스, 화목 등 연료의 종류가 다양해져 이를 다루는 사람의 세심한 주의와 화재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불조심 표어 중 가장 오래된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있다.

화재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했다. 불조심 표어와 포스터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불조심이 곧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가정이나 직장 등 생활 공간에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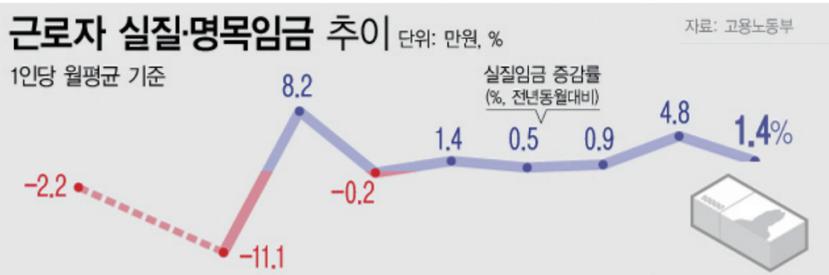
남부소방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소방안전 공모전 및 광주소방 화보 전시회, 다문화가족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학교안전교육,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불조심 현수막 게첨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및 소방차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불조심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 요소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기·전기·가스 등을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 준수와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주변에 화재 위험 요인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으면 한다.

올 겨울에는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기대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